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바깥으로 끄달리지 말고 주인공을 진실히 믿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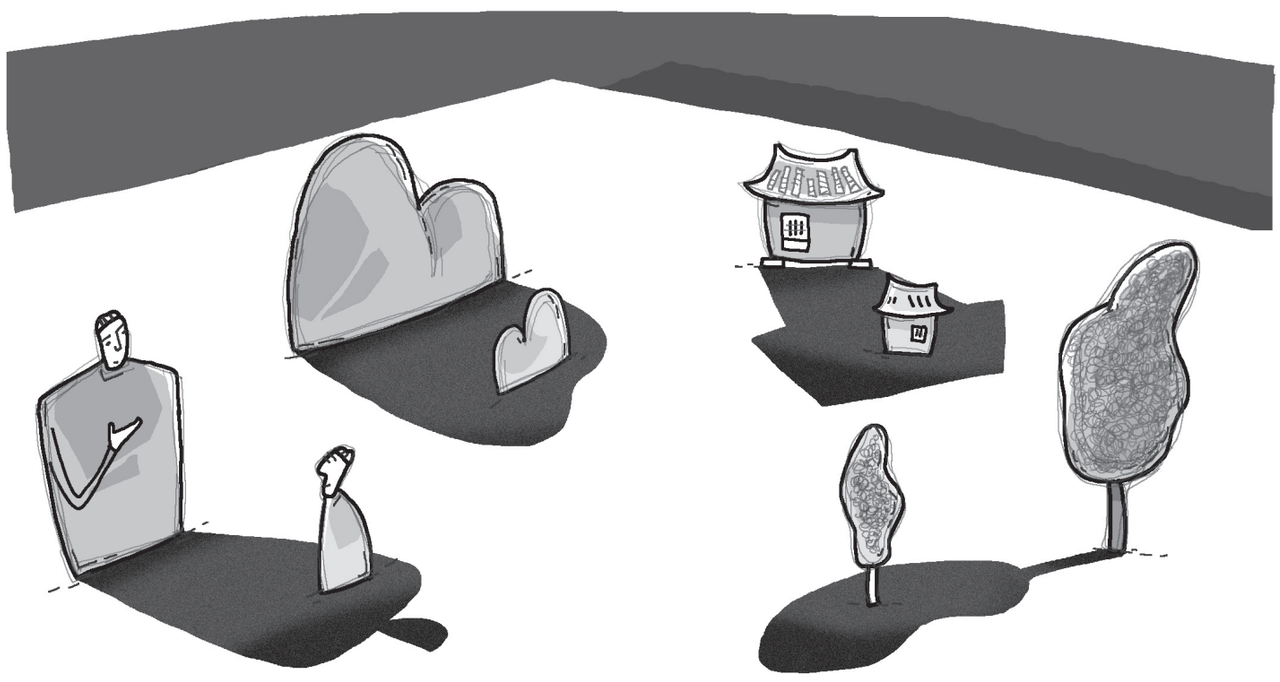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무심으로 살고 싶은데

질문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무심으로 살고 싶은데 걸리는 게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마음공부를 한다면서 이렇게 걸리는 내 모습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저에게 채찍을 내려 주십시오.

답변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다, 빈 컵 놨다, 그럼 이거 지나간 겁니다. 과거예요. 이건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끊어진 자리라 그랬습니다. 간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컵을 놨다. 앞으로 이 먹을 거를, 오는 거를 생각지 않죠. 내가 목말라야 먹을 생각이 나는 거지, 목도 안 마른데 미리 '아, 내가 목마르면 먹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끊어진 자리예요, 본래. 누가 끊어라 말아라 할 게 없이 앞뒤가 끊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 지금 이 먹은 컵을 비켜 놓고선 생각지 않았는데 내가 앞뒤가 다 끊어진 자리에서 내가 목마르면 이렇게 먹는다. 이것도 계획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목이 마르니까 그냥 먹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그대로 무심이요, 그대로 공이요, 그대로 했으나 먹은 사이가 없이 그대로 먹었다 이겁니다. 이게 실상이에요. 그러니 아주 무겁고 어렵고 길게 생각 늘여 놓지 마세요. 간단한 문제예요. 내가 배가 고프면 밥 먹고 똥 마려우면 똥 누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목마르면 물 먹고 내가 할 일 있으면 그냥 하고, 이러는 것이 그대로, 그대로 바로 무심의 행이란 말입니다.

그런 거를 되풀이해서 '이게 뭔가?' 하고, 오는 거 족족 '뭔가?' 하고 돌아간다 이겁니다. 야! 뒤에 간 것도 뭔가, 앞에 올 것도 뭔가, 이게 보이는 것도 뭔가, 내가 물 먹는 것도 뭔가. 이러고 가다가는 십 년 걸려도 안 되고 이십 년 걸려도 안 됩니다. 물 먹었으면 컵 비켜 놓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목마르면 그냥 물 먹으면 됐지, 앞으로 목마를 테니까 내가 물 먹게끔 '목마르면 물 먹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앞뒤가 끊어졌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런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몸이 아파도 조절을 못 합니다. 우선적으로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것도 방편이지만, 마음의 주인이 이 모든 것을 형성시키고 이렇게 했어도 모든 것이 실답지 않게 돼 있는 물질이니까 모든 게 공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자 공입니다. 그러니 모든 걸 하더라도 그대로 하는 것이 공했으니 그 주인공에 몰락 놔 버리고, 일임해 버리고 바로 믿고, 자기가 공하고 자기가 부처라는 걸 믿고 딱 놔 버려라 이겁니다, 다! "믿어라. 그리고 감사해라." 이겁니다. 배고픈데 밥 먹었으면 감사해야죠, 자기 원소 자체에다가. 원소 자체가 있으면서도, 내공이 있으면서도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배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의 촛불을 켜고 있기 때문에, 밝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 생명 때문에 말을 좋게도 하니까 향기가 나고 마음의 향을 피울 수가 있죠. 또 마음이 참 좋아서 웃으면 웃는 대로 그것이 바로 저 고요한 달밤에 달이 떠서 모든 데를 밝혀 주는 것처럼 그러한 아주 자비의 웃음이란 얘깁니다. 그런데 낮에도 저 해가 떠 있지 않으면, 구름이 가리고 그러면, 인간으로 치면 마음이 우울한 데서 검은 구름이 끼는 거죠. 그와 같이 저 해도 검은 구름이 끼면 해가 비치지 않듯이, 인간의 마음도 검은 구름이 끼면 밝은 마음이 바깥으로도 풍기지 않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질 않죠. 이것이 그대로 법이란 말입니다.

'과거에 업보가 있어서 내가 그러려니. 팔자 운명이 이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엔.' 하고 생각들 하지 말라 이 소립니다. 팔자 운명이 따로 없어요. 생각을 하면, 그렇게 팔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팔자가 있는 것이고 팔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팔자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북쪽으로 가면 걸리지. 삼살방이 들었지.' 이러면 삼살방에 걸린 거죠. 자기 마음에서 걸렸기 때문에 걸리는 겁니다. 사방이 툭 터졌는데 그건 왜 툭 터졌다고 하느냐? 내 마음이라는 원소 자체는 체도 없고 빛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 바깥으로 올라가서, 저 꼭대기에 마음이 올라가 보세요. 걸릴 게 뭐 있나? 한번 올려 보세요, 마음을. 동쪽으로 가도 걸리지 않고 서쪽으로 가도 걸리지 않고 남북으로 가도 걸리질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거는. 지구 바깥으로 올라가도 걸리질 않고. 산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런 도리를 알아야 정확하게 산도 물도 그렇게 내 주먹 안에 다 들어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 도리 한번 공부해 보세요.

집안의 화목이 깨져 버렸어요

질문 자기를 깨달아야만 문제가 없어질까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가정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사업이 망하면서 가정이 깨져 버렸습니다. 다시 이전처럼 화목한 가정으로 회복하고 싶은데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답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항상 바깥으로 끄달리지 말고 주인공을 진실히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한테 따귀를 맞는다 해도 그것도 주인공 자기 탓입니다. 자기가 눈에 보이니까 맞은 거지, 눈에 안 보이면 맞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나는 잘했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때렸느냐고 하지 마시라 이거죠. 그러니 그 맞은 것도 자기 탓이죠. 자기가 있기 때문에 맞은 거니까요. 어저께 어떠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맞는 겁니다. 꼭 때려야만 맞는 게 아니라 불손한 일을 했으면 불손하게 들어올 거고 선한 일을 했으면 선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발견을 해야 그때서부터 진짜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깨닫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고 나의 병도, 나를 건강하게 끌고 가는 것도, 가난한 거를 끌고 가는 것도, 이 모든 게 여러분이 체험하고 연구하고 또한 지혜를 기르면서 그렇게 해 나가신다면 스스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깨치지 못했다고 해서 내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만 해 나가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이 편안하고 바로 내 마음이 편안하면 남의 마음이 편안하고 한 가정이 화

☞ 20면으로 계속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